목포대 약대 건물 첫 삽 떴다

76억원 투입 내년 8월 준공

전남 서남권 약학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목포대 약학대학 신축 건물이 내년 8월 들어선다.

목포대는 16일 자연과학대학과 학생생활관 사이에 있는 약학대학 신축부지에서 고석규 목포대 총장, 정종득 목포시장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약학관은 전체면적 4996㎡, 건축면적 1339㎡로 지하 1층·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실습 약국, 도서관, 동물실험실 등 시설을 갖춘다. 총 공사비 76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다도해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신약 개과 의료 수요자에게 찾아가는 농어촌 친화적 능동형 의료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지역 약학 인력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대는 지난해 2월 25명 정원의 약학대학을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올해 1월 정원 5명을 추가 배정받아 앞으로 학부 입학정원 30명과 대학원 30~40명 수준의 석·박사 인력 양성체제를 갖춰 총 편제 정원은 220명 규모다.

대학은 약학대학 설립을 위해 지난 2009년 5월 '약학대학추진 TF'를 구성하고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7개 병원, 12개 제약회사, 4개 연구소와 MOU체결, 6개의 자치단체와 후원협정을 체결했다.

고석규 총장은 축사를 통해 "약학관은 전남도민이 이뤄낸 결실로 국고지원 한푼 없이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조성한다"면서 "서남권 보건의료 서비스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권 '청년창업 거점'으로

목포대 창업선도대학 선정

호남권 창업 선도대학인 목포대학교가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선다.

목포대는 최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주관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창업선도대학은 중기청이 청년층 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해당 지역의 창업 거점으로 선정하여 예비 기술창업자를 키우고 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지역별로 청년 창업을 이끌어 갈 창업 거점 대학으로 호남권(호남.·제주)을 비롯해 서울권과 경기·인천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등 전국 6대 광역경제권별로 4년제 12곳, 전문대 3곳을 선정해 대학당 2년간 최대 80억원을 지원한다.

목포대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유치를 위해 TF팀(팀장 이상득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장)을 구성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호남권 예비창업자 육성 방안 마련 등 대학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녹색기술 특성화 창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신재생 에너지 ▲IT 융복합산업 ▲바이오산업의 특화분야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를 실현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앞으로 호남권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해 연구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봄이 왔어요" 함평군 곤충연구소의 유리온실에서 봄의 전령 나비가 꽃잎 위에 앉아 있다. 이곳 유리온실에는 오는 4월말 열리는 '제13회 함평 나비대축제'에 사용될 '암끝검은표범나비'와 '배추흰나비' 등 5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진도 지역인재 키우기 각계 성금답지 잇따라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진도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 모금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십시일반'(十匙一飯) 손길이 몰리고 있다.

16일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따르면 군 소식지 등을 통해 인재육성기금 모금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기탁 물품을 포함해 7000만원의 장학금이 답지했다. 특히 '진도 53 유통영농조합법인'이 300만원을 낸 데 이어 ▲송화원 한약방 100만원 ▲선일식품 500만원 ▲㈜청원 300만원 ▲진도홍주연합회 800여만원 ▲진도청년회의소(JC) 부녀회 50만원 등이 각각 기탁됐다.

전남대 평생교육원 진도원우회원들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2700만원을 냈다.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오는 2014년까지 장학 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재육성장학회의 필요성에 공감한 주민과 사회단체들의 장학기금 기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해 매월 5만원 등 정기적인 소액 기탁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0월 발족한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는 33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학업성적 우수자와 특기자를 선발, 총 154명에게 8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국민우선 목포경찰' 워크숍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지난 15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국민을 우선하고 현장을 존중하는 경찰문화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역주민을 비롯 경찰서장, 현장경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에 대한 신뢰회복과 현장을 존중하는 경찰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 인권의식 체질화를 위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조직문화 및 의식 개혁을 위한 부패비리 척결 ▲국민만족을 위한 조직운영 ▲성과평가·인사정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원국 경찰서장은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후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을 추진해 국가와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함평 관광해설사 교육생 모집

함평군은 지역 문화 관광자원의 고품격 해설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대상자(25명)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20세 이상~만 6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 ▲자원봉사가 가능한 자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자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등이다. 신청은 우편이나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명사진 2매를 군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 부서(061-320-3733)로 제출하면 된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전 북

야간·공휴일 민원서류 발급 고민 끝

순창군은 공휴일과 야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최근 순창농협 365 코너에 설치, 호응을 얻고 있다. 무인 민원발급기로 가능한 민원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등 12종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지역 건설업 '부실의 늪'

지난해 행정처분 업체 223개…시정명령도 급증

도내 건설업체들의 체질이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

일반·전문 건설업계는 건설업 등록기준이나 실적미달로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계속 사업 규모를 축소하며 위축되고 있다.

우선 전문 건설업계의 경우 지난 2009년(248개)보다 32%(80개)나 증가한 328개 업종이 자본금(2억 이상) 기술자 보유(면허당 2명) 등 등록기준, 기성실적(2년간 누계 1억원 미만)미달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는 도내 전체 전문건설 업종(4935개)의 6%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한 업종도 지난 2009년에 비해 22개(17%)나 증가한 147개였다.

3년간 동일 사유(등록기준 미달 등)로 2회 적발되거나 폐업이 확인돼 등록말소된 업종도 69개에 달했다.

일반 건설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곳 중 3곳꼴로 기성실적과 자본금이 부족해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영업정지(98개)와 등록말소(19개), 과태료(51개), 시정명령(55개)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수가 전체(692개)의 32%(223개)에 달한다. 시정명령의 경우 지난 2009년(11개)에 비해 40%(44개)나 늘어난 것이다.

주택건설 업체들은 갈수록 사업이 줄고 있다. 주택업체들이 1년간 얼마나 신규사업을 추진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다.

전북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업체들의 사업승인 현황은 지난 2009년(6883호)에 비해 30%(2037호) 가깝게 줄어든 4846호(29%)에 머물렀다. 이 같은 흐름은 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이 급감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1만6962호로 장점을 찍은 후 지난해 5624호 등 감소 추세다.

도내 한 건설 관계자는 "불황 여파로 인해 현재 업체들이 최소한의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자본금 확인기간 확대(60일) 등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건설업 관리지침이 강화된 측면도 있어 향후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새만금방조제 입구에 '다목적 공원'

군산시 70억 투입…분수대 등 편의시설 조성

올해 말 새만금방조제 입구와 군장국가산업단지내에 다목적 공원이 조성된다.

군산시는 지난 15일 새만금 주변 비응공원 조성 설계용역을 최종 완료했다.

비응공원은 새만금 상징 광장조성 및 다양한 문화와 휴식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잔디광장 개발로 공원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 주변계획과 연계성, 새만금 방조제 관문으로서 역할 수행, 많은 관광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올해 확보한 30억원을 포함 총 70억원의 예산으로 다음달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응공원은 4만9000㎡(1만4800여평) 규모로 파노라마 분수대와 벽천(壁泉)분수, 녹향길, 야외무대, 화장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비응공원은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간의 원활한 교류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누구나 찾아와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구제역 예방에 미생물 특효"

순창군 EM 활용후 발생사례 없어

〈유용미생물〉

구제역과 AI(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창지역의 EM(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난 2005년 3억원을 들여 298㎡(90평) 규모의 EM 공장을 구림면 산지 시험포에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전주대에서 가져온 1차 종균(원액)에 물과 당밀(설탕 찌꺼기)을 배합해 30~50배로 확대 배양한 EM 활성액을 생산하고 있다.

군은 EM 활성액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순창지역에서 300여 농가가 EM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군이 무상으로 제공한 EM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에서는 7년여 동안 단 한 차례의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

순창군 관계자는 "축산에 EM을 꾸준히 사용하면 위생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항균제와 항생물질이 필요 없는 '꿈의 축산'이 실현된다"며 "사료효율이 10~20% 이상 높아지는데다 구제역 등 전염병 차단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단신

道, 소외이웃 2300가구 주택 개·보수

전북도는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올해 120여억원을 투입해 2천300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한다.

도는 자체 예산을 들여 저소득계층의 낡은 주택 개·보수에 가구당 250만원을 지원하고 국비사업으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종류별로 보면 안전이 우려되는 지붕 개량이 39.2%, 보일러 교체와 수리가 7.4%, 화장실 개량이 6.8% 등이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김제시, 폭설피해 강원 동해시 복구 지원

김제시가 지난주 10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본 자매결연도시 강원도 동해시의 복구 지원에 나섰다.

김제시는 김용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동해시 폭설피해 복구지원반'을 편성해 ▲공무원 7명 ▲덤프트럭 1대 ▲제설차량 1대 ▲김제지평선쌀 200포(1000만원 상당) ▲염화칼슘 6t ▲위문품을 보냈다. 또 이건식 시장은 김학기 동해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해시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정읍시, 영유아 중심 보육시설 운영 호평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시립 보육시설 2개소를 36개월 미만의 영아 중심으로 차별화해 운영, 주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하모동 예본 어린이집과 연지동 샘골 어린이집의 영아 비율은 각각 76%와 62%. 양 어린이집은 36개월 미만의 영아 중심으로 영아들의 성장과 두뇌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아들을 지도하는 등 전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익산시 저소득층 '심부름 센터' 개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익산시 사회복지 심부름센터가 남중동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난 15일 문을 열었다.

이 사업은 익산시에서 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 지난 1일부터 운영중에 있다. 총사업비 592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심부름사업을 펼친다.

심부름센터 요원(3명)은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방문도움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문의(1577-1966·061-855-1966)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